

‘나를 따르라, 열방을 향해’

여름 아웃리치, 국내 200팀 4,689명, 해외 146팀, 2,609명
여름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 아웃리치 사진 및 간증 모집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나를 따르라, 열방을 향해’를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에는 국내 200팀, 4,689명, 해외 146팀 2,609명이 참가한다(8월 14일 기준). 국내 아웃리치는 충남 보령, 강원 춘천 등지에서 이미용 봉사, 노방전도 등을 한다. 해외 아웃리치는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사역자 블레싱, 벽화 사역 등을 한다. 아웃리치 참가자들은 출발 전 반드시 안전관리 수칙을 확인 및 점검해야 한다.

강리안 성도(대전온누리교회)는 “여름 아웃리치를 계기로 선교는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상 속 실천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미경 안수집사(양재A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면서 “예수님이 주신 섬김의 기쁨을 잊지 않고, 교회와 이웃을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사명자가 되겠다”고 고백했다.

미디어사역본부에서는 ‘여름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여름 아웃리치 영상을 60~90초 분량으로 제작해서 8월 31일(월)까지 이메일(onnurismart@gmail.com) 또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2026), 온누리교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평택온누리교회 믿음공동체가 캄보디아 스와이쯔름 마을에서 ‘작은 러브소나타’를 개최했다.

(@onnuriacts29) 태그,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응모하면 된다.

〈온누리신문〉에서는 여름 아웃리치 간증과

사진을 모집한다. A4용지 1장 분량의 간증과 가로형 사역 사진, 작성자 최근 정면 사진을 이메일(wisdom7@onnuri.org)로 제출하면 <

온누리신문〉에 순차적으로 게재한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장로아카데미 하반기 참가자 모집

8월 31일까지 목회행정실 신청

2026 장로아카데미 하반기(오픈강좌)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진행된다. 이전에 장로아카데미 수업을 마친 장로들이 대상이다.

장로아카데미 참가를 희망하는 온누리교회 장로들은 8월 31일(월)까지 목회행정실 김경렬 간사(mtop1@nate.com)에게 신청하면 된다. 정원 15명, 참가비는 무료.

장로아카데미는 온누리교회 장로들의 영적 성숙과 리더십 개발, 상호 친교 및 온누리교회의 영적 유산을 이어가는 과정이다.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이어진 상반기 장로아카데미에는 온누리교회 장로 25명이 참가했다.

문의: 02-3215-32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러브소나타 이와테’ 참가자 모집

8월 20일까지 러브소나타 홈페이지 신청

‘러브소나타 이와테’ 참가자를 모집한다. A팀은 10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아오모리공항을 이용한다. B팀은 10월 21일(수)부터 24일(토)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하나마키공항을 이용한다. 참가비는 A팀 126만 원, B팀 152만 원이다(항공료와 숙박, 식사 등 현지 체재비 포함).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는 8월 20일(목)까지 러브소나타 홈페이지(www.lovesonata.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신청 이후 3일 이내에 여권 사본 제출과 접수비 납부를 해야 한다. 접수비는 A팀 60만 원, B팀 70만 원이다. 잔금은 9월 10일(목)까지 완납해야 한다. 카드 결제는 1인당 5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러브소나타 이와테는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요 7:38)을 주제로 10월 21일(수)과 22일(목) 토사이클래식홀에서 열린다. 21일 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 22일 리더십 포럼과 러브소나타 집회가 이어진다. 문의: 02-570-7415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성찬용 포도즙 제조

성찬용 포도즙을 제조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8월 31일(월)과 9월 1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재온누리교회 9월 1일(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식당에서 제조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성찬팀, 임직 봉사자, 양재온누리교회 권사회, 성찬팀, 임직 봉사자들이 참여한다. 이 기간 교회 식당은 운영하지 않는다.

문의: 02-3215-3533(서빙고)

02-570-7522(양재) / 홍하영 기자

독후감대회 ‘온누리썸머북케이션’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독후감대회 ‘온누리썸머북케이션’ 제출 마감일이 일주일 남았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8월 23일(일)까지 독후감을 200자 원고지 10장 이상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A4용지 글자 크기 12, 1,000자 이상). 원고는 온누리도서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onnurilibrary@naver.com)로도 접수할 수 있다. 문의: 02-3215-3110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인 죄목 중 하나는 ‘무신론자’, 신이 없는 자들입니다. 당시 종교로 인정받으려면 신전과 제물, 제단이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 세 가지가 없는 종교는 그리스도인들뿐이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평가입니다. 새벽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던 사람들이 예배가 없다는 조롱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박해가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곧 제단이고, 그들의 인생이 곧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지혜, 그분의 지식,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판단을 찬양합니다(롬 11:33). 그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1절).

산에 비유하면 11장까지 정상에 오르는 것이고, 12장부터 내려오는 길입니다. 정상에서 본 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교리와 삶은 한 산의 두 비탈입니다. 복음은 삶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 삶이 흘러나오는 근원과 동력을 말합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도덕과 철학은 충고와 권면만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해 줍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응답하게 합니다.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 ‘카리스(Charis)’에서 감사라는 말 ‘유카리스티아(Eucharistia)’가 나왔습니다. 감

사는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하심 위에서 오늘 본문의 중심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드리라’는 단어도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모순입니다. 원래 제단에서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아서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히 10:14).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고, 그 제사로 죄의 값이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사는 죄를 씻는 제사가 아닙니다. 속죄제가 아니라 감사제입니다. 값을 치르는 제사가 아니라, 값을 치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제물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제사장과 제물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곧 제사장이고, 곧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제물이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제단을 쌓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드러졌기에, 그분이 제물이 되셨기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도 제물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생명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가 되었기에, 십자가를 통과해서 다시 산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러진 자가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롬 6:13). 살아있는 제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생명만이 이 제단 위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 제물’이란 우리가 만들어낸 업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입니다.

산 제물의 유일한 문제는 자주 제단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죽은 제물은 내려오지 못하는데, 산 제물은 다리가 있기 때문에 자주 내려옵니다. ‘살아있다’는 또 다른 의미는 ‘계속된다’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매일 순간마다 우리는 제단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

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헬라 시대 세계관으로는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도 모순이지만, ‘몸을 드리는 것이 거룩하다’는 것도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헬라 시대 이원론은 영은 선한 것이요, 몸은 악이라고 생각했던 플라토니즘(Platonism)에 빠져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악하게 여겼고, 몸을 무덤으로 여겼던 시대에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요,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입으신 몸이요,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될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받으십니다. 마음은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몸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가 곧 그 사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혀가 축복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손이 드러지면 이웃을 돕는 사랑의 손길이 되고, 발이 드러지면 복음을 증거하는 필요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드리면 사람의 허물보다 아픔과 연약함을 먼저 보게 됩니다.

드림, 변화, 그리고 분별

몸으로 드러지는 거룩한 산 제물을 또 ‘영적 예배’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성’ 혹은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집니다. 이성에 합당한 예배, 말씀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로 임하신, 그리스도가 입으신 육신에 대해서 말씀에 합당한 몸으로 드러지는 것이 곧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섬김과 봉사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은 168시간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보낸 시간은 한 두 시간입니다. 나머지 시간 전체가 제단으로 드러져야 합니다. 곧 삶이 예배이며, 예배가 곧 삶입니다.

2절의 ‘이 세대’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대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 자체, 보이는

세상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 정신, 철학, 가치관, 세계관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시대가 만들어낸 틀에 우리가 들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대정신’이라는 말로 그 틀에 사람들을 찍어내듯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육 제도와 내용까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틀은 힘이 셉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부어지고, 부어지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이 ‘변화’의 의미는 본질 형태의 변화입니다. 본질이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틀에 갇히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성된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드린 사람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드림이 먼저이고, 변화가 그다음에 일어나고, 세 번째가 분별입니다. 분별은 제물로 제단에 드러진 자가 얻는 시야입니다. 지혜입니다. 지식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자들에게는 분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2000년 전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제단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신을 따르는 자들이요, 무신론자들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진정 제단에 드러진 산 제물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단이 없었던 그들의 예배가 마침내 로마 제국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도 제단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삶의 현장이 제물이 드러지는 제단이라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 제단에 몸을 드리는 사람이 변화를 받고, 변화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그 길을 앞서 걸어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의 남은 평생이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프로라이프 입장에 대한 흔한 반론

프로라이프(Pro-life) 입장에 대해 가장 흔히 제기되는 세 가지 반론은 다음과 같다.

“낙태는 여성의 사적인 선택이다.”, “태아가 인간이라 하더라도 인격체는 아니다.”, “낙태를 금지하면 여성들은 의학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위험한 불법 낙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에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이러한 주장은 각각 ‘사생활의 자유에 근거한 반론’, ‘인격성에 근거한 반론’, ‘불법 낙태의 위험성에 근거한 반론’이라고 한다. 낙태 옹호자들은 흔히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강력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첫째, ‘사생활의 자유에 근거한 반론’에 답할 때는 이것을 기억하라. 낙태가 여성의 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간과하는 것이다. 유아나 청소년, 성인을 죽이는 일을 정당화하면서 사생활의 자유를 이유로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에만 사생활의 자유를 핑계로 삼는다. 이는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뜻이다. 이 전제를 드러내려면 이렇게 말해 보라.

“사실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 낙태가 여성과 의사 사이의 사적인 선택이라는 말도 맞다. 정부가 여성의 사적인 결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맞다. 프로라이프 진영이 여성의

사적인 선택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맞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면 말이다.”

낙태 찬반 논쟁의 핵심 쟁점은 사생활의 자유가 아니다. 핵심은 무고한 인간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다. 프로라이프 진영도 여성이 여러 가지 사적인 선택을 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무고한 인간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은 그러한 선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인격성에 근거한 반론’에 답할 때는 이것을 기억하라. 태아가 인간이기는 하지만 인격체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논증이 아니라 단순한 주장일 뿐이다. 그 주장은 인간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린다. 왜 인간이면 서도 인격체가 아닌 존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대화 중 이런 주장이 나오면 이렇게 물어보라.

“그렇다면 어떤 특성을 갖추어야 인간이 인격체가 되는가?”

낙태 옹호자들은 흔히 의식이 있어야 한다거나, 당장 자기 자신을 인식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거나, 혹은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인격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왜 그런 특성들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사실 자기 인식과 같은 능력은 건강 상태나 수면 여부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라지거나 변

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능력이 없는 순간에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사라지는가? 또한 우리 모두 이런 능력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덜 가진 사람보다 생명에 대한 권리를 더 많이 갖는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인간의 평등이라는 원칙은 버려도 좋을 것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집단들은 지능지수(IQ), 성별, 피부색과 같은 특정한 특성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낮추고, 그들을 억압해 왔다. 요컨대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동등한 생명권을 지닌 인격체라고 믿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셋째, ‘불법 낙태의 위험성에 근거한 반론’에 답할 때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른바 ‘뒷골목 낙태(back-alley abortion)’에 근거한 반론은 거짓에 기초하고 있으며,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성을 폄하한다.

1960년대 ‘가족계획연맹’의 의료 책임자였던 메리 칼데론 박사는 불법 낙태로 인한 사망률이 너무 낮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불법 낙태 시술의 90%가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의사들에 의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합법이든 불법이든 낙태로 여성이 목숨을 잃는 것은 비극이다. 그러나 이른바 ‘뒷골목 낙태’에 근거한 반론 역시 낙태를 옹호하는

다른 많은 주장과 마찬가지로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주목하라.

본질적으로 이 주장은 이런 논리다. 일부 사람들이 무고한 인간을 의도적으로 죽이려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으므로 국가는 그 일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은 한 인간이 아무런 죄가 없는 다른 인간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일을 더 쉽고 안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성들이 불법 낙태를 ‘강요’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불법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여성을 폄하하는 것이며, 여성이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 ‘사생활의 자유에 근거한 반론’을 제기한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낙태가 여성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태아가 인간이기는 하지만 인격체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논증이 아니라 단순한 주장일 뿐이며, 인간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린다.”

“불법 낙태의 위험성에 근거한 반론은 거짓에 기초하고 있으며,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성을 폄하한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소망

톨킨의 〈니글의 이파리〉



박은미 성도
(서초A공동체, 온누리
세계관학교)

팀 켈러는 저서 〈일과 영성〉에서 일의 핵심 비유로 J.R.R. 톨킨의 단편 〈니글의 이파리〉를 소개합니다. 화가인 니글은 평생 나무 한 그루를 온전히 그리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자질구레한 일과 이웃 패리시의 귀찮은 부탁들을 들어주느라, 결국 평생의 결작이 될 뻔했던 나무 그림에 이파리 하나만을 남긴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현실에서 무언가를 이루려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여러 방해 요소로 인해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발휘하는 모든 열정과 창의력,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모든 수고는 이대로 사라지는 미완성작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의 궁극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기적〉에서 “선조들이 미래를 응시할 때 황금빛 섬광을 보았던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싸늘한 안개를 볼 뿐”이라고 진단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자꾸 머뭇거리는 것도 우리 세대의 소망이 그만

큼 열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인간 창조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는 물리적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대한 ‘문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소가 소를 낳고, 까치가 까치를 낳듯,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물려받아 태어난신(Beget) 유일한 원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인간은 하나님이 완벽한 원본의 형상을 본떠 창조하신(Make) 사본입니다. 사본이 된 인간이 원본인 예수님을 머릿돌 삼아 세상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처음 의도하신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웅장한 계획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인간의 반항, 즉 ‘원죄’로 인해 심하게 뒤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죄의 삶은 사망’이라는 선포 아래, 죽음과 함께 살과 뼈는 물론 문화 명령에 따라 그 몸으로 담아냈던 모든 일까지 썩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유한한 운명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비록 타락으로 인해 그 본래의 목적이 심하게 훼손되었지만,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사상가 제임스 사이어가 지적했듯, 인간에게는 자기 의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창조할 수 있는 주체적인 힘이 있습니다. 자연계의 인과율은 기계적인 도미노와 같

지만, 인간은 그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닫힌 체계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힘과 결정력을 가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한계가 있는 몸을 가지고서도 우주를 관찰하며 초월을 탐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전 시대의 플라톤은 초월적 세계(이데아)만을 중시한 나머지 인간이 발 딛고 있는 물질세계를 열등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격하했습니다. 이러한 이원론적 철학 경향은 훗날 많은 기독교인에게도 스며들어 영과 혼만 거룩하고, 육체와 물질은 속되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적’ 오류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통 기독교 신학은 이러한 관점을 거부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물질세계를 없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고쳐서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앞서 인용하였던 〈기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물질이 완전히 사라진 영적 세계가 아니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곳도 물질이 사라진 영적 세계가 아니라 ‘고유한 새로운 자연’이었다고 말합니다.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최종 도착지가 결코 물질이 배제된 영혼만의 세계가 아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니글의 이파리〉의 결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 천국 입구

에 도착한 니글은 자신이 평생 그리려 했던 바로 그 나무가 완성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니글은 “그것은 선물이었어!”라고 외칩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자 했던 것, 그러나 끝내 미완성으로 남겨두고 떠나야 했던 것이 사라진 게 아니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J.R.R. 톨킨은 천국에서 만난 니글의 예술적 안목과 패리시의 실질적인 기술이 아름답게 협조해 ‘니글의 공동체 구역’이라는 정원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젠가 하용조 목사님은 “지금 이 세상은 마치 자궁 속에 든 것과 같은 미완성의 세상이고, 거기서 아기가 태어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이 땅에서 하는 일도 아직 자궁 속 태아처럼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태어날 때 비로소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까요?

인간의 미약한 수고를 귀히 보시고 친히 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이파리 하나를 조심스레 그려 나갑니다. 지금은 희미해 보일지라도 그 손길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회복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려 오신 우주적 완성의 서사를 마주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서초B, NGO 메디엑세스, 브릿지33+ 태국 아웃리치

벌써, 다시 가고 싶다!

땀방울, 웃음과 눈물, 아이들의 노래, 마주 웃던 얼굴들

평균 나이 60세, 55명, 5박 7일. 조합되기 어려워 보이는 이 단어들을 보석으로 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서초B공동체, NGO 메디엑세스 라파팀, 브릿지33+공동체 연합 아웃리치팀(이하 연합 아웃리치팀)이다. 이들이 지난 7월 25일(토)부터 31일(금)까지 태국에서 연합 아웃리치를 했다. 선교사들의 발을 씻기고, 아픈 이들을 진료하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다. 그 꿈결 같은 시간을 담았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벌써, 다시 가고 싶다.’

지난 7월 31일(금) 오전 9시 40분. 태국 수완나품국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한국 땅에 발을 단자마자 이 생각부터 했다. 모두 같은 마음이라 더 신기하고, 특별했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얼른 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이번엔 달랐다. 함께 간 사람들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벌써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집과 차를 팔아 산 그 땅에서

태국은 인구 95%가 불교를 믿는 나라다. 그 나라 헌법에도 ‘국왕은 불교도’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을 만큼, 불교는 태국에서 신앙을 넘어 국가 정체성으로 여겨진다. 그 영향으로 태국 기독교는 2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녔음에도 여전히 인구 1%대에 머물러 있다.

그 좁은 길에서도, 그 땅을 너무 사랑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연합 아웃리치팀 사역지였던 ‘엘드림기독교국제학교’가 그 시작이자 주인공이다.

1996년,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유철준 집사(서초B공동체, 글로벌전선교회·엘드림기독교국제학교 공동 이사장)는 선교사들을 만날 일이 잦았다. 그들과 대화하다가 태국 선교사들의 가장 큰 고충이 자녀 교육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후 유철준 집사가 이규식 선교사(글로벌전선교회·엘드림기독교국제학교 공동 이사장)가 담당하는 임마누엘선교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됐다. 선교사 자녀 50명을 학교에서 돌보면 선교사 25명이 자녀 걱정 없이 오지로 떠날 수 있고, 선교사 한 사람이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2,500명에게 닿을 수 있을 거로 여겼다. 그 꿈이 조금씩 영글어갔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이규식 선교사가 유철준 집사에게 “좋은 땅이 나왔습니다”라고 연락했다. 땅 가격은 시세의 3분의 1, 크기는 무려 1만 9천 평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선교사들의 발과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연합 아웃리치팀(위), 연합 아웃리치팀과 물총놀이를 하는 반진자이 고아원 아이들(아래).

찬양 ‘천국은 마치’ 가사처럼, 집과 차를 팔아 기어이 그 땅을 샀다. 진흙 위에 시멘트가 발리고, 건물이 세워지는 동안 이학일 장로(서초B공동체, NGO 메디엑세스 이사)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헌신이 더해졌다. 그렇게 그 땅이 전 세계에서 온 아이들이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장(場)이 됐다. 2020년 3월 9일 태국 방라뭉에 설립된 이 국제학교에는 12개국(태국, 한국, 중국, 러시아, 폴란드 등)에서 온 학생 51명이 재학 중이다. 열방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되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며 가르치고 있다.

연합 아웃리치팀은 지난 7월 25일(토) 이 학교 기숙사에 짐을 풀며 5박 7일의 여정을 시작했다. 첫날부터 부엌은 ‘식사섬김팀’ 차지였다. 낯선 주방에서 팀원들의 끼니를 챙기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역만리 타국에서 받아 든 집밥 한 끼가 지친 팀원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됐다.

둘째 날엔 방라뭉 새빛교회에서 연합예배를 드렸다. 국적도, 언어도 다른 이들이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다. 몇 주 동안 연습한 특수도 이어졌다. 이한규 목사(서초B공동체 담당)의 설교는 영어와 태국어로 동시 통역됐고, 성도들은 연신 “아멘”으로 화답했다.

오후엔 이 학교를 섬기는 유철준 집사, 조혜숙 권사 부부와 이규식, 최영미 선교사 부부, 그 사역을 이어받은 이반석, 이기쁨 선교사 부부를 위한 블레싱이 이어졌다. 그 얼굴에 씩씩

줄 화관은 전날 밤늦도록 팀원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졌다. 55명의 팀원이 세 부부의 발과 어깨에 손을 얹고 눈물의 기도를 했다.

땡기열을 옮기는 모기가 흔한 이 학교 구석 구석을 ‘방역팀’이 소독약을 짚어지고 돌기 시작한 것도 이날부터였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원래는 태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의료봉사가 이번 아웃리치의 중심 사역이 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태국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몇 달을 준비한 계획은 방콕 한인 성도와 태국을 섬기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진료로 바뀌었다.

진료소를 찾은 이들 상당수가 병원 문턱조차 넘기가 어려운 처지였다. 통역 없이는 진료 한번 받기도 어려웠고, 보험이 안 될 때는 진료비와 약값이 한 달 생활비와 맞먹었다. 그래서 웬만큼 아파서는 참는 게 익숙해진 이들이었다.

진료는 병원이 아닌 예배당(방콕한인연합교회, 더블레싱한인교회)에서 했다. 수액 길이가 없어서 빨랫줄과 보면대에 링거를 걸었다. 그 아래 웅기종기 모여 앉은 사람들은 수액이 다 떨어질 때까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눴다. 치과 진료실도 사정은 비슷했다. 전용 의자 대신 매트리스 한 장을 펴거나 일반 의자 머리맡에 목베개를 걸어 대신했다. 그들에게 ‘NGO 메디엑세스 라파팀’의 진료는 가뭄에 내

린 단비 같았다.

안경자 권사(방콕한인연합교회)가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진료도 봐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제대로 치료는 받고 있는지 물어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금니가 깨진 채로 몇 해를 참아온 최도열 선교사가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태국에서 일반 병원에 가면 진료비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그 수준을 밟고 말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진료를 받고, 성과 위로를 얻게 되니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낯선 땅에서 몇십 년을 홀로 버텨온 선교사들을 위한 블레싱 자리도 마련했다. 팀원들이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화관과 선물을 전달하며 축복했다. 태국에서 22년째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 정영란 선교사가 함박웃음을 지어 보였다.

“오직 선교사들을 만나려고 이 먼 곳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과 화관을 씌워주시고, 극진한 보살핌과 치료까지 해주셔서 제가 공주가 된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유치를 뺨고 나온 임하엘 어린이(임진석, 양윤희 선교사 자녀)도 인사했다.

“이가 흔들려서 걱정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정말 즐거웠어요. 태국에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심심할 때가 많았거든요.”

의료팀이 진료소 불을 밝히는 동안 ‘청소년 사역팀’을 비롯한 다른 팀원들은 태국 땅의 어린 영혼들을 품었다. 엘드림기독교국제학교와 반진자이 고아원(Baan Jing Jai Children Home)에서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함께 웃으며, 예수의 사랑을 전했다. 피약별 아래서 아이들과 함께 물총을 쏘며 놀고, 제기를 차고, 줄넘기를 뛰고, 색칠 놀이를 했다. 작은 사진관을 차려 아이들 사진을 찍어주고, 액자와 키링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감짝선물을 줬다. 반진자이 고아원 아이들이 연합 아웃리치팀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전부터 노래 하나를 몰래 연습했다고 했다. 서툰 한국어 발음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한 소절 한 소절 불렀다. 그 노래 한 곡이 며칠 간의 피로를 단숨에 씻어냈다.

비행기가 태국 하늘을 벗어나던 밤, 스마트폰에 저장해 둔 사진을 몇 번이고 꺼내봤다. 팀원들의 땀방울, 선교사들의 웃음과 눈물, 서툰 한국어로 부르던 아이들의 노래, 피약별 아래서 마주 웃던 얼굴들이 자꾸만 나를 그 땅으로 다시 끌어당겼다. 그 땅을 사랑한 이들의 마음이 나에게도 옮겨붙은 모양이었다.



온누리M센터 ‘열방연합세례식’.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온누리M센터 ‘열방 연합세례식’ ... 이주민 55명 세례

온누리M센터가 지난 8월 9일(일) 안산M센터에서 ‘열방 연합세례식’을 개최했다.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당), 김태완 목사(온누리M미션 담당), 김영환 장로(온누리M미션 대표장로), 온누리M미션 리더십 및 봉사자, 이주민 성도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례식에서는 인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지에서 온 이주민 55명이 세례를 받았다.

열방 연합세례식은 1부 연합예배,

2부 연합세례식으로 진행됐다. 연합예배에서는 올네이션스 찬양팀 찬양, 김영환 장로 대표기도, 장근희 교수 특순, 박종길 목사 설교, 세례자 간증, 세례식, 세례 증서 수여, 축도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이날 박종길牧사는 ‘새로운 피조물’ (고후 5:16~17)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연합세례식에서 세례를 받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축

복했다.

노밍 성도(몽골, 유아세례자(김소원) 어머니)는 “소원이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고, 어뜨에르텐 형제(몽골, 성인세례자)는 “내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증언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10명과 서울 나들이

양재 이웃사랑팀과 허브대학부 연합사역

양재 이웃사랑팀과 허브대학부가 연합사역을 했다. 지난 8월 7일(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10명을 초청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나들이를 했다.

아동 1명당 멘토 1명으로 짝을 이뤄 DDP 전시1관에서 진행 중인 ‘키

크니전’을 관람하고, 기념사진 촬영, 굿즈 구매, 식사 등을 했다.

홍은주 서기(양재 이웃사랑팀)는 “아이들이 처음 만난 멘토 선생님들과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다”면서 “아이들에게 귀중한 하루를 선물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LOVE & MARRIAGE 3기 참가자 모집

9월 4일~10월 2일 매주 금 오후 7시

크리스천 미혼 남녀의 건강한 만남과 성숙한 결혼을 돕는 ‘LOVE & MARRIAGE’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행가레 비전센터(종로)에서 진행된다(추석 연휴 제외). 10월 9일에는 야외 만남 ‘One-Day 리트릿’을 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8월 21일(금)까지 QR

코드로 하면 된다. 남녀 각 7명씩 모집한다. 서류 심사 이후 선정된 참가자에게 자세한 사항을 개별 안내한다. 회비는 30만 원.

LOVE & MARRIAGE 3기는 소수정예 프라이빗 과정이다.

문의 010-3340-7039



일.하.세. 아카데미 27기 참가자 모집

일.하.세. 아카데미 ‘일터에서 성공하려면’ 2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온누리청소년센터 소극장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8월 22일(토)까지 하단 QR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일.하.세. 아카데미에서는 성경적 세계관 등을 바탕으로 일의 의미를 재정립한다.

문의: 010-4949-0254



‘교회교육자들을 위한 ACSI 기독교사 자격증 과정’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교육센터(TTCM)에서 ‘교회교육자들을 위한 ACSI 기독교사 자격증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8월 29일(토)부터 12월 19일(토)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과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학사 학위 이상 소지한 기독교 교육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8월 24일까지 QR 코드로 하면 된다.

문의: 02-570-7565

ttcem@ttgu.ac.kr



故 이태오 형제, 5명에 새 생명 선물

온누리M미션, 치료비 마련을 위한 후원금 모금

안산M센터 몽골어예배에서 신앙 생활을 하던 이태오 형제(OTGON SANJMYATAV, 16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환자 5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

故 이태오 형제는 지난 6월 3일(수) 교통사고를 당해 중증 외상과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6월 11일(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생전 성품과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고인의 심장과 폐, 간, 양측 신장을 장기 이식 대기자 5명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故 이태오 형제 유가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응급수술과 중환자실 입원, 각종 검사와 치료 과정에서 약 5천만 원의 치료비를 지불하느라 빛이 3천만 원이나 생겼다.

온누리M미션에서는 故 이태오 형제 가족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아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입금자명에 ‘이태오 후원’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8100

31-74605(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문의: 010-4713-6949

(최명학 선교사)

온누리복지재단, 한국가이드스타 평가 ‘별 3개’ 최고등급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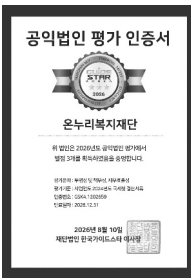
온누리복지재단이 지난 8월 10일(월) 공익법인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결산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투명성, 책무성, 재무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의 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별 3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온누리복지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 송영범 장로는 “앞으로도 온누리복지재단

은 기독교 법인으로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재정과 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청춘클래스 15기 참가자 모집

9월 12일과 19일 여의도 정곡빌딩 4층

청춘클래스 1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12일(토)과 19일(토) 오후 3시 여의도 정곡빌딩 4층에서 진행된다. 청춘클래스 15기에서는 12일 최성민 목사(대학청년본부장) 특강, 19일 한강 크루즈 선상데이트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3일(일)까지 하단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남녀 각각 20명씩 총 40명을 모집한다. 회비는 7만 원(양일 식사 포함).

청춘클래스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건강하고 실재적인 만남과 연애, 결혼을 돕기 위해 2021년 시작됐다. 온누리교회 가정사역본부 소속 청춘클래스팀이 주최하고, 대학청년본부 공동체가 후원한다. 현재까지 청춘클래스에서 50여 가정이 탄생했다.

문의: cheongchunclass@gmail.com

/ 홍하영 기자



How Mission 17기 참가자 모집

8월 29일~9월 19일 서빙고 홍보관

How Mission(총체적 선교스쿨) 1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How Mission에서는 영적 복음 전파를 넘어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는 총체적 선교의 핵심 개념을 배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인적

건강, 주인의식, 구호와 개발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8월 28일(금)까지 하단 QR코드에서 하면 된다.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회비는 3만 원(선교사 무료).

문의: 010-6285-4382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맞춤형전도집회와 하나님



/ 서상희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

〈온누리신문〉에 실린 ‘맞춤전도 기차여행’ 광고를 보는 순간, 가슴이 마구 설됐다. 10여 년 전 두 번의 맞춤형전도집회에 참석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던 이제 85세가 되신 어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제천까지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일정이 무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그보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용기를 주셨고, 그날의 은혜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

제천으로 향하는 기차에서 전도폭발팀 제인량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 더 놀라운 일은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신 것이었다.

세례를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자리로 돌아가는데, 국민일보 기자님이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태어나 처음으로 해본 인터뷰가 실제 신문에 실렸고, 기사에 나란히 적힌 어머니와 내 이름을 보았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내 딸아, 너의 이름과 함께 엄마의 이름도 나의 생명책에 같이 적혀 있단다.”

복음이 주는 복

가슴이 미어지도록 감격스러웠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기차여행을 떠나는 날, 남편이 서울역에 먼저 가서 현장 접수를 돕고 기차가 출발하는 순간까지 우리를 배웅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에게 남편이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휠체어를 타신 분들, 양쪽에서 부축을 받으며 걷는 분들, 자녀도 어머니도 이제는 할머니가 되어 두 손을 꼭 잡고 느릿느릿 걷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다고 했다.

사실 남편은 결혼 전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시대 가족 모두가 낙심해 오랜 시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다. 그런 남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맞춤전도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경이롭다.

내가 보고 경험한 이 모든 기적이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 주는 복’이 아닐까 짐작한다(고전 9:23). 이 작은 자에게 복음이 주는 풍성한 복에 참여하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 온누리호스피스스쿨 수료 간증



/ 이경수 집사(온누리호스피스스쿨, 부천온누리교회)

2024년, 50대 후반 나이에 골수암 판정을 받았다.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과 혼란이 밀려온 순간이었다. 돌이켜보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은혜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 병동에서 보낸 시간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암 병동에 입원해 있는 동안 묵묵히 환자들을 섬기는 자원봉사자들과 마주했다. 환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울림이 있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온누리교회 시니어 스쿨을 섰다. 인천성모병원과 아주대학교 병원에 자원봉사도 문의했다. 그 과정에서 호스피스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마침 〈온누리신문〉에서 온누리호스피스스쿨 수료자의 간증을 접했다. 그 간증을 보고 나도 온누리호스피스 교육에 참가하기로 결단했다.

온누리호스피스스쿨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내 삶을 돌아보게 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온누리호스피스 교

함께 있어 주는 것
자체가 사랑

육에서 얻은 가장 큰 은혜는 ‘경청’이었다. 무언가를 해주려 하기보다 그저 곁에 있어 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깊은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동안 나는 무엇인가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나님은 그런 내게 ‘함께 있어 주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양지 요양센터에서의 실습도 큰 감동을 주었다.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하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어르신이 내 손을 꼭 잡으시고 눈시울을 붉히시며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지를 깨달았다.

온누리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면서 섬김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저 함께 있어 주고,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돌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은 두려움이 아닌,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작은 손길이지만, 외롭고 힘든 분들 곁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고, 그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과 평안을 누리도록 곁을 지키는 삶을 살고 싶다.

■ 와이무슬림 수료 간증



/ 김가현 성도(분당A공동체)

내가 와이무슬림 과정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인도네시아 여류 아웃리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가진 나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무슬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아웃리치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무슬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싶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이슬람의 기본 교리와 문화, 생활방식뿐 아니라 무슬림들이 무엇을 믿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배웠다. 무엇보다 무슬림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소중한 영혼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동안 막연하게 바라보았던 무슬림들을 이제는 하나님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또한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를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복음의 가치가 새롭게 다가왔고, 나의

두려움과 염려가
기대와 소망으로!

신앙을 돌아보며 복음에 대한 감사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었다.

무슬림 선교가 일부 선교사들의 사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관심을 두고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도 배웠다. 선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며,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감당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다.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를 앞두고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염려가 와이무슬림 과정을 수료하며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었다. 현지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영혼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와이무슬림 과정은 단순히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을 배우고 품는 시간이다. 앞으로도 무슬림과 열방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 큐티스쿨 수료 간증



/ 신수영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

온누리교회에 오기 전에는 ‘큐티(QT)’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교회 등록 이후 안팎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큐티 나눔 모임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의 목상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것이 무척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큐티를 그저 ‘성경을 읽고 마음에 외닿는 구절을 잠시 묵상하는 것’ 정도로 여겨왔다. 주변에서 큐티스쿨 수강을 권유했 때마다 사양했던 것도 이런 이유였다. 그러다 문득 큐티의 본질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스스로 강의를 찾아 신청했다. 큐티스쿨을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큐티를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큐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큐티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고방식으로 변화됩니다.”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이 한마디가 큐티의 참된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이전에는

큐티의 참된 의미와 중요성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외닿는 구절이 있어도 돌아서면 이내 기억에서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쉽게 잊히지 않았다. 더 나아가 단순한 묵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됐다.

목사님이 묵상과 적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해 주신 덕분에 시간이 흐를수록 큐티에 대한 막막함과 어려움이 조금씩 해소되었다. 바쁜 일정에도 세심하게 피드백을 주시고, 풍성한 강의안을 제공해 주신 목사님의 사랑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린다. 더 불러 소중한 조장님과 조원들을 만나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도 큰 감사다.

4주 동안 배우고 깨달은 것을 머리에만 남겨두지 않으려 한다. 매일 큐티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큐티로 인해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되기를 바란다. 또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기도한다.

장로칼럼

장로아카데미의 목표와 의미



김명현 장로
(장로아카데미 대표장로, 분당A공동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 27:17).
2016년 장로아카데미를 시작하던 당시 대표장로였던 이 장로 장로님이 이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장로아카데미의 출발점이다.
선배 장로님들은 안수집사 시절부터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길게는 20여 년에 걸쳐 다양한 사역 경험과 전문성을 쌓으셨다. 온누리교회가 성장하면서 국내외 캠퍼스와 여러 사역본부가 확대되었다. 각자의 사역에 집중하게 되면서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와 장로님들 간의 교류가 점차 부족해지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5년 정과종 장로님의 제안이 당회의 결의를 얻어 장로아카데미로 탄생했다.
철이 철을 만나야 더욱 날카로워지듯, 장로님들도 시대의 변화를 함께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공동체를 더욱 성숙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 필요했다. 장로아카데미는 장로님들이 12주 동안 함께 배우고, 대화하며,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이 취지에 따라, 그동안 장로아카데미는 온누리교회 모든 장로의 참여를 목표로 운영했다.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온누리교회 장로 414명이 수료했다. 현재는 제12차 장로아카데미에 장로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장로아카데미의 핵심 프로그램은 매주 1시간 주제 강의와 20분간의 조별 토론이다. 주중

에는 성경통독을 함께 하며 조원들 간의 교제도 이어간다. 다음 모임에서는 조별 토론 내용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장로아카데미를 수료하신 장로님들은 90일 안에 성경을 완독한 경험이 큰 은혜였다고 말씀하신다. 또한 12주 동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간증도 자주 듣는다.
강의 내용은 온누리교회의 목회 철학, 사회 선교, 이주민 선교와 같은 교회의 목회적 주제를 다룬다. 여기에 리더십, 소통훈련, 영성훈련, 일터영성 등 개인의 성숙을 위한 내용과 과학기술, 가정, 교회사, 고령화 등 교양 분야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대부분 장로님이 매주 화요일 저녁 성실하게 참석하신다. 수료증과 함께 개근상을 받는 모습은 장로아카데미의 또 하나의 자랑이다.
올해는 교육과정과 운영 방식을 새롭게 개편했다. 1학기 6주는 기존과 같이 정규과정으로 운영하고, 2학기 6주는 이미 수료하신 장로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특강이 진행되고, 노후 건강관리와 재산 상속 등 장로님들의 실제 삶과 밀접한 주제도 다룬다. 기독교 선교의 발상지이자 역사적 현장을 배우는 강의와 탐방도 준비돼 있다. 온누리M센터 사역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와 장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함께 고민하는 일은 우리의 중요한 과제다. 아직 장로아카데미에 참여하지 않았신 장로님들은 이번 기회에 함께하시기를 권한다. 장로아카데미를 더욱 의미 있는 배움의 장(場)으로 세워 가도록, <잠언>의 말씀처럼 서로를 더욱 날카롭게 하는 귀한 조언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바란다.
문의: 02-3215-3234

권사칼럼

나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에스라가 여호와 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스 7:10).
학사 에스라는 포로 귀환 이후 영적으로 무너진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운 지도자였다. 그는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시키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순종을 결단하도록 이끌었다. 그에게 붙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 학사’라는 수식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당시 ‘학사’는 오늘날 학교 선생님이라기보다 율법을 베껴 쓰고, 연구하며, 해석해서 백성에게 가르치는 서기관을 뜻했다.
에스라는 율법을 베껴 쓰면서 연구하고 배우고 배운 것을 곧장 삶에서 실천해 보고, 삶으로 검증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제사장이었다. 말씀이 실재가 되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성경을 읽다가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으면 그 말씀을 따로 기록해서 소리 내 선포한다. 반복하다 보면 그 말씀이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한다. 때로 앞뒤 문장이 해석되기도 하고, 구약에서 신약이 연결되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의 묘미를 느끼기도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 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마 13:52).
율법에 능통한 에스라 서기관을 목상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 비유로 설명한 장이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마음의 공간에 쌓고, 때를 따라 새것과 옛것을 꺼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옛것’이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다. ‘새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천국의 비밀, 복음,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새로운 계시와 적용이다.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은 옛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옛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풀어내 이해하기 쉽도록 전하는 사람이다. ‘創(창)’이라는 한자를 보면 집 공간에 있는 양식을 칼로 썰어 내놓는 형성자다. 자기 집 공간에 먹을 것이 가득 있어야 아낌없이 내놓는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기뻐서 구약과 신약을 버무려 한 상을 차려낸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다.
부인을 따라 늦게 교회를 다닌 어느 초신자 남편이 “나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분 같아서 이해되고 납득되는 부분만 믿기로 했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분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셨어요”라며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한 뒤에는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 드렸다.
나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처럼, 말과 글로써 예수님을 잘 나타내기를 기도한다. 자신이 누군지 몰라 방황하는 청소년, 청년, 어르신이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나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임을 선포한다.

선교칼럼



최명현 선교사
(화성M센터)

무슬림 친구와 복음을 나누고 싶다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에 복음을 서둘러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무슬림들에게 종교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가족과 조상, 민족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된 삶의 일부이다. 따라서 신앙을 논리적으로 비교하거나 상대방의 종교를 비판하는 방식은 복음을 듣기도 전에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에는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신뢰를 쌓는 전통이 있다. 말보다 행

동을, 주장보다 인격을, 순간적인 감정보다 꾸준한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살핀다. 이 문화적 특성은 선교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Belong → Believe(먼저 관계를 맺고, 그다음 믿음을 탐색한다)’라는 원리와 맞닿아 있다. 물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관계 자체가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뢰는 복음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한다. 존중받고 사랑받는 경험은 복음을 가까이 들을 마음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예수님의 사역 역시 이러한 모습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셨다.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셨으며, 사마리아 여인과는 대화로 마음을 여셨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셨다. 복음은 관계를 통해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 관

계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했다. 우리는 상대의 신앙을 공격하거나 논쟁에서 이기려 하기보다, 그의 삶에 관심을 갖고,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도움이 필요할 때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왔을 때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 소망을 겸손하고 진실하게 나눠야 한다. 복음은 강요가 아니라 증언이며, 설득 이전에 삶으로 드러나는 초대이다.
우즈베키스탄 문화에는 환대와 의리, 신뢰, 꾸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깊이 자리하고 있다. 상대가 ‘이 사람은 나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느낄 때 더는 방어적인 태도로 우리를 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언젠가는 “당신은 왜 이렇게 평안합니까?”, “힘든데도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십니까?”라고 질문할 것이다. 바로 그때가 복음을 전할 소중한 기회다.

이러한 이유로 ‘스몰톡(Small Talk)’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으며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마련하는 관계 사역이다. 이주민 사역은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긴 여정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스몰톡 멘토링(Small Talk Mentoring)’은 단순한 대화 모음이 아니라, 신뢰를 쌓고 인격을 나누며,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관계 중심의 선교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원리는 우즈베키스탄 친구뿐 아니라 네 팔, 몽골, 베트남 등 다양한 문화권 이주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 내며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한 사람과의 작은 대화를 소중히 이어가는 것이 관계 중심 선교의 시작이다.

관계 중심 선교

